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5호

발행일 : 2021.09.1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어떠한 환경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병환이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거라 믿습니다.



<간증>

할렐루야 ~ 열매구역 이윤경 집사입니다

라이프지를 통해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 제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엔 저에 큰아이 병관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스물 일곱 살이나 됐는데 아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 눈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물가에 내놓은 것 같고 하루가 시작되면 병관이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그렇다보니 기도할 때도 늘 병관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사무실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병관이가 기거하다보니 따로 떨어져 있어서 더욱더 먹는 것 등, 그 아이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신경써지고 걱정거리인거지요. 가끔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집착 아닌가! 하는 생각요. 자식에 관심 없는 부모가 있을까 싶지만 저는 좀 중증인 것 같아요. 어릴적부터 몸도 약하고 둘째 병연이에 비해 일도 참 많아서 말 그대로 손이 참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기도할 일도 많고 기도의 비중이 다른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더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벌써 27살 결혼할 나이까지 장성하였으니 시간은 정말 쏜 살보다 빠르네요. 공부만 다 시켜 놓으면 맘이 좀 후유해 지려나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병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부터 아빠 일을 도와 당진코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당진으로 오긴 왔는데 회사 일도 신앙생활도 오히려 그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제게도 병관이에게도 가장 큰 문제였죠. 그나마 주님과 이어지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주일 예배인데 주일에 병관이 모습을 보지 못할 때면 엄마인 저로서는 마음 조리고 속상한 맘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있던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게 할걸 그랬나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울한 표정 가득한 아이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우울해 졌습니다. 일도 힘들지만 예배가 전무하다시피 하니 영적 공허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기에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을거라 굳게 믿고는 있었으나 아이의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대할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교회 생활과 멀어지는 병관이를 보면서 이따금씩은 내가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회사를 나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줄 사람은 엄마인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행복한 것, 또 하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보기도 제목은 늘 이 제목이었으며 기도회 때나 가정예배 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으니깐요. 그런데 다른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는 간절한 만큼 인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데 몇 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달이 바뀌어도 제 눈에 아이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남편의 사업장 중 낚시 가게에 한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하게 된거죠. 그곳에 병관이가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야간 일이라서 자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다보니 적응도 해야 하고 모르는 낚시 일을 해야 하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거 맞지요?^^ 주일마다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또 한번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날엔가 병관이가 제게 “엄마 중고물품 사러 문경에 가는데 엄마 같이 가요”라고 제안을 하더라구요. 흥쾌히 같이 갔습니다. 간김에 맛난 점심도 먹고 문경새재를 아들과 걸으며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늘 자상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뜰한 부분이 있는 병관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게 그러더라구요.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라구요.^.^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오래도록 해 와서 경험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를 주실 때 쓰나미로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들어주시더니 이제 아이의 입을 통해 꼭 짊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 주시더라구요. 기도 응답이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빠지지 않는 것과 아이가 행복하길 위한 기도 제목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이 맛에 주님 믿나봐요^^ (다소 저렴한 표현이지요?)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아주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에게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병관이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더라구요. 대충(?) 다녀도 주일 예배 참석과 불참석은 영적으로 천지 차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엿그제 전도사님께서 제게 오셔서는 병관이에 관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구요.

“우리가 기도를 지혜롭게 못한 것 같애. 기도 제목을 모든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야 했어” 라구요.

주일 예배 외엔 참석하지 못하는 병관이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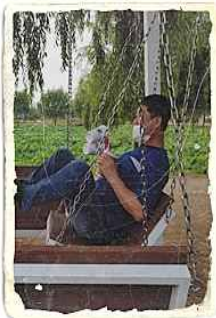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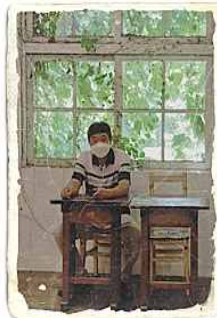
크크크크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구요. 아차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지금 기도중입니다.

공적 예배회복과 병관이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요. 이 또한 주님이 이루어 주실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지키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병관이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거라 믿습니다.

저에 큰아들 병관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분별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집 회사 주님



성도알아가기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순복음교회 이경애 집사의 남편이요, 세 아이 (상윤 상우 지아)의 아빠인 김희주 집사입니다.

2.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03년 신덕교회에서부터 시작했네요. 그때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실제로 신앙생활은 2006년 당진순복음교회 등록한 후가 아닐까 합니다.

3. 아내이신 이경애 집사님은 집사님께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자 많이 미안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4.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 될 때는 언제인가요?

매 순간 느끼죠. 만약 이경애 집사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교회 밖 세상에 있지 않았을까요.

5. 벌써 바울 남선교회 소속일만큼 나이를 드셨는데요.

몸은 건강하신지요? 드시는 약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먹는 약도 없어요.

6. 세 아이를 키워 오시면서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결심했던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상하며 잘 놀아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벌써 두 아이는 장성해서 놀아줄 필요가 없게 되어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딸에게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고 싶어요.

7. 이경애 집사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모든 요리가 다 맛있어서 딱 하나를 꼽기가 어려워요.

8. 온 가족이 종종 여행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던 여행은 언제였나요?

지아가 어릴 때 처남이 살고 있는 동해로 놀러가서 생전 처음 보트를 타고 신나게 놀고 대관령목장에서 양몰이도 구경했던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장인어른이 일하셨던 광산도 구경하며 장인어른도 떠올려 보았답니다.)

9. 두 아들을 키우면서 소통이 힘들다 느껴질 때는 언제였나요?

지금까지 아이들과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매우 알고 싶어요. 누구 이야기 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10. 아내분께 살면서 가장 고마운 일과 가장 미안한 일 한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고마웠던 일 : 사업 실패 후 힘들 때 묵묵히 옆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잘 견뎌준 일.

미안했던 일 : 이경애 집사 몸에 화상 자국을 볼 때마다 미안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형편이 어려워 친정에서 기거할 때 벌어진 일이라서요.

11. 집사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화가 나거나 할 땐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잘 받지 않아요.

12. 가족들에게 바라는것을 가족당 한 가지씩 말씀 해 주세요.

아내 :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내 옆에서 지내주는 것....

상운 :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찌하실까를 생각하며 예배 생활과 직장생활을 잘 하길.....

상우 : 자신의 감정조절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살아가길.....

지아 : 이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살아가길.....

13. 자신을 마음껏 칭찬 해 주세요.

매사에 부지런하고요. 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는 것요.
무엇보다 칭찬할 일은 이경애 집사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구요. 결혼 잘 했다. 희주야 ㅋㅋㅋ

14. 학창시절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도와주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15.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중장비 운전을 하고 있어요 (로우더기사)

16.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올해가 가장 힘이 들었네요. 두 아들과의 소통이 잘 되질 않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소통은 잘 안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겨 나가는 중입니다.

17. 교회에서 관리위원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덕분에 주님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늘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8. 집사님의 소망이 궁금해요.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내 집을 장만해서 이사 심방 드리는 것입니다.

19. 8월의 생활 실천표어는 ‘내 지경으로 들어오라’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성전 밭기와 더 많이 교회를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상윤이 상우의 직장문제와 장막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거칠지도 어디 하나 모나지도 않은 조약돌~
둥굴 둥굴하면서 예쁘기도 하여 한번쯤은 주워 만져보며
감탄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선물해 주는 매끈한 조약돌~
그런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수천 수만번의 파도에 깎이고 쓸리는
모진 세월이 날카롭고 거칠고 투박한 돌맹이에게는 그 거센 파도는 시
련이고 아픔이며 괴로움이요 고통이었겠다 싶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잔잔한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
게 하고 반복 되어지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
간에 바닷가의 조약돌이 생각되었습니다.
때론 감당키 어려워 터져 나오는 한숨을 어찌 할 수 없지만,
문제 속에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문제를 뛰어 넘어보겠노라 마음먹으면 그 문제를 넘어
다시금 삶에 평안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속에
시련과 아픔의 잔잔한 파도가 있겠지만,
그 파도는 나를 조약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
어지며, 도구로 삼고 발버둥치는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돌맹이인 나를 조약돌로 다듬어 가슴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보렵니다

다음주자 이경애 집사



권찰일기

정소진 권찰

2021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은 해주는 밥 먹고, 빨래 청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집안일을 시작하려니 참 힘들다. 엄마를 도와주던 것은 정말 새 발의 피였다. 퇴근하고 저녁을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하지만 맛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했으니 맛있다는 남편과 사이좋게 먹었다. 먹고 나니 설거지가 한 가득이다. 남편은 내가 요리했으니 설거지는 본인이 한다고 하여 이때다 싶어 얼른 말기고 나는 아침 출근 전 어질러놓은 집안 정리를 하고 잠시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니 벌써 씻고 자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매일 직장 매역 출근을 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다.

이렇게 직장생활과 살림만으로도 힘들고 피가 나는 내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은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나도 피할 수 없는 입덧이 시작되었다. 울렁울렁하고 음식 냄새는 맡기 싫고,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소파에 누워 있다. 일할 때 보다 집에 오면 입덧이 점점 더 심해지고 몸은 고단하여 살림하기가 버겁다

쇼파에서 잠시 쉬고 있으면 남편이 저녁을 차리고 부르지만 간신히 한 두 숟가락 먹다가 밥은 그대로 다 남기고 과일 몇 조각으로 배를 채운다. 당연히 힘든 나를 대신하여 뒷정리는 남편이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식기세척기가 있어 설거지가 줄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뒷정리를 하는데 오빠는 내가 할 때보다 한참 더 걸린다. 그리고 마무리가 항상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지만, 열심히 하는데 뭐라 하면 안 한다고 할까봐 봐도 못 본척하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솔직히 지금은 잔소리할 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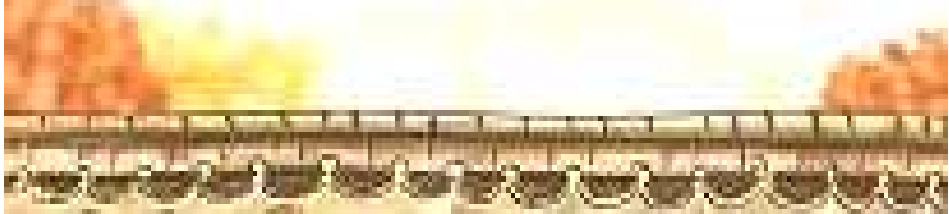
집안일에 손 놓고 보니 집이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 한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바닥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일어나서 청소기는 못 돌리겠고..... 로봇 청소기와 물걸레 로봇 청소기까지 동시에 작동시키고 이걸로 바닥 청소는 마무리했다.

엄마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지만 내가 겪어보니 세상의 모든 엄마가 더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다. 임신하고 직장까지 다니는 임산부들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

난 체력의 한계와 입덧으로 직장은 잠시 내려놓고 태교와 육아에 매진할 해 보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삶이 가장 큰 태교라는걸 안다.

과연 내가 잘해 낼 수 있을지는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간다면 못 할 건 또 없다고 생각하며 부딪혀 봐야겠다. 일주일만 다니면 퇴사니깐 힘들어도 잘 버텨 보자!



기도

김정임 집사

종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시는 것을 당연하다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을만한 그릇을 준비하셨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에
죄에 얽매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덧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가며
신앙 생활을 방해하며
최악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거뜰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어느덧 9월,

저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네 삶을 형통케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위하여

절대적 신앙으로

섬리 신앙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물질과 건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세상에서 저희들이

은혜 받은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웃에게 본이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무장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인형자 집사)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요
오빠와 함께
(김성령 형님)



이모

저모



아이들이 연라인을
타며 운동중이네요.
보호구는 필수죠.
(전수현 집사)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어요.
배도 똥이가고
허벅지에 근육도
생기는것 같네요
(이영주 집사)

예성이가 윙가룩 나와서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축구했어요.
땀 흘리면서
즐거워 시간 보냈어요.
(이영주 사모님)



좀 거칠어 보이죠?
주짓수 운동 하고 있어요.
밖목이 찢어진 적 있지만
보이는 것 보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민애 청년)



이모



저모



야간 운동 하고 있어요.
인성자 점사님
박선진 점사님과
함께 운동장
걸고 있습니다
(구옥순 점사)



면천으로 이사하고
동네이 걷기
운동 장소가 되었어요.
땀과 아침운동 합니다
(원재욱 권사)



유초등부 소식

할렐루야~!!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늦은 장마비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필요한 비가 내리는거라 이 또한 감사함으로 여기며 8월 유초등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여름성경학교 2번째 날이었습니다. 포일아트와 팀워크를 다지는 레크리에이션에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있는 스낵 방까지~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었는데요. 준비한 것보다 시간이 짧아 아쉽게 끝낸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두 번째 날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 했습니다.

둘째 주는~ 두구두구...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프로그램 진행 없이 반 모임으로 대체했지만 각 반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무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주엔 여름성경학교 때 못내 아쉽던 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물총도 쏘고 물 옮기기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뛰노는 시간을 갖었는데 우리 친구들의 해맑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건 이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방수 마스크를 쓰고 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신나게 뛰노는 우리 친구들을 기대해 봅니다.

넷째 주에는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우리 일상의 아이템 마스크 트랩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줄에 구슬을 하나하나 끼우고 고리를 연결하는 고사리 손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 색상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며 끼우는 꼼꼼이들도 있고 그냥 막 이쁘다 싶은 것들로 끼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완성된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7월, 8월 생일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우리 친구들 생일이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 생일 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더 즐겁게 축하 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히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 1인 간식으로 대체해서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 유초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 essay.300 -



응답은 못 받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

*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투심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투린 그림 찾기

투린곳은 5곳



성경퍼즐

				1					
				아					2 르
			3 엘		4 야				
					5	6 우			보
		7	사						
	8	단				9 송			
	약					배			
10 유									

가로

-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선지자 000는 불마차를 타고 승천했어.
- 여행을 계획했는데 방송에서 비가 많이 온다는 0000가 내려지면 여행은 취소하는 게 좋단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로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기!
- 바알 신을 숭배하는 000은 오래도록 제단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단다.

8.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00을 이용하는 방법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9.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웅. 늘 박쥐 가면을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나타나지!
10.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00를 쓴다. 00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지.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겠지?

세로

1. 물을 담은 그릇. 엘리야는 제단에 한 000의 물을 부으라고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2. 남쪽 유대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0000이었어.
3. 엘리야의 제자는 000였어.
4. 산의 정상에 오르면 00!라고 소리를 지르지? 그런데, 동물들이 놀라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래.
6. 우상숭배 하는 일. 엘리야는 0000하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제단에 불붙이기 대결을 벌였다.
7. 엘리야와 바알 신의 제사장은 00에 불을 붙이는 쪽의 신을 믿자고 약속했다.
8. 아빠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종이에 000를 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000를 써 볼까?
10. 이스라엘은 결국 남쪽의 00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

<지난호 정답>

								은	하	수
							여			
							리			
							고			
						백	성			
				모	세					
		레	위	기						
솔	로	몬								
방										
울	보		지	혜						
	물	장	구							

웃으십시오!

이신애 권찰

이 분은 꼬물꼬물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어느 날은 비누를, 또 어느 날은 버무리를, 손소독제를, 향초를, 주방 세제를..... 주일 학교에서 만들기 수업도 참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더니 드디어 두둥~~!! 공방을 차렸습니다.

라운제나.

이름도 참 예쁘죠? '즐거운 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쁘게 쓰임 받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색도 향도 기분 좋아지는 매력이 있네요.

요즘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선물 '엄마'라는 자리를 받았습니 다.

얼마나 귀하고 예쁠까요? 아마 밤잠을 못 자고 다리 뻗고 편히 쉬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람이를 보고 있노라면 아픈 줄도 괴로운 줄도 모를겁니다^^

첫 아기 키우느라 초보티 팍팍 내는 박두식 권찰님과 이신애 권찰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화해의 기술 ♡

어느 노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 화간 난 할머니는 그날부터 입을 닫고,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 놓고, 한쪽에 앉아 말없이 TV만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또 말없이 승능을 떠다 놓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웠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게 할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마른빨래를 정돈해서 옷장 안에 넣고 있었고, 말없이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옷장 문을 닫고 나가자 옷장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뒤지며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화가 났다.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할머니 몫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도대체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임자 목소리를 찾았구먼.”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화해 요청에 할머니도 그동안의 화가 풀리면서 웃으면서 화해하게 되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이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에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라 관계에 금이 가고 마는 것이다. 화해의 기술은 자존심을 잠시 굽히고, 먼저 미소 한번 지으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화해는 시작되며 관계는 회복된다.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 발타자르 그라시안 -

<역사의 인물>

우광복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젊은 선교사 부부가 삼정의 문란으로 국운이 쇠하던 조선에 파송되었다. 저들의 사역지는 충남 공주였다. 그리고 이 땅 인천에서 얻은 첫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사진)이라고 짓는다. 이 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에서였다. 이어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다. 1906년 2월 논산 지방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던 선교사 윌리엄은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길 근처의 상여집으로 몸을 피했다. 이곳의 상여가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른 줄을 모르는 선교사는 비가 그친 후 이곳을 떠난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다. 예기치 못한 병으로 남편을 여윈 선교사 부인은 졸지에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 윌리엄 선교사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두 딸마저 풍토병에 걸려 영명동산에 묻혔다. 인천에서 1907년에 태어난 우광복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조부모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로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마쳤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 조선이 해방을 맞고 신탁통치가 시작될 때, 하지 장군의 통역관으로 재차 내한했다. 당시 하지 장군은 한국말과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관이 필요했다. 이 때 하지를 도와 이 땅에 온 통역관이 우광복이었다.

군정시절 미군 중령 군의관으로 통역사의 일을 맡은 우광복에게 하지 장군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다.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 이때 우광복은 50명의 엘리트를 추천했고, 이들은 이후 한국정부수립에 관여했다. 당시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 50명을 추천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48명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 요소마다 기독교인들이 활동했다.

1948년 5월 30일 제헌국회 의장 이승만은 제헌의원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했다. 당시 기독교인이 5%였던 이 나라에 윌리엄 선교사 사모와 우광복이 추천한 50명이 건국에 영향을 끼쳤고, 이 숫자는 10년 만에 500만으로, 20년 만에 1000만이 되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로 영면했고 그의 유해는 11살에 세상을 떠난 동생 올리브가 묻혀 있는 공주의 영명동산에 안장되었다. 그의 유언대로였다.

<감동글>

어미새의 사랑



차디찬 영하 날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의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새장을 베란다에

걸었다가 저녁이면 들여오곤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는 자라서 알을 품더니 두 마리의 예쁜 새끼를 갖게 되었으며 그 새끼들은 새장 속에 만들어 준 둥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 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그냥 보내 버렸습니다. 아침에서야 생각하고 허둥지둥 나가보니 아뽏싸! 어미새는 둥지를 몸으로 덮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죽은 어미새를 집었더니... 아! 거기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한 마리의 큰 새와 두 마리의 새끼는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몸으로 둥지를 덮고 얼어 죽으면서까지 남은 생명들을 사랑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한파, 죄악의 한파가 몰아 닥쳐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차디찬 십자가에 몸을 던져 스스로 차가워지면서 세상이라는 둥지를 덮음으로 그 한파 속에서 뜨거운 혈액으로 소생케 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셨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목적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머

골프장 락커룸에서 몇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때 벤치 위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고 한 친구가 받았다.

“여보세요”

조용해서 상대방 목소리가 잘 들렸다.

“여보? 나야~”

“응”

“아직 골프장이야?”

“그래”

“나 지금 백화점인데 마음에 꼭 드는
밍크코트가 있어서...”

“얼만데?”

“천오백”

“마음에 들면 사”

“고마워. 그리고 좀 전에 벤츠 매장에 갔었는데 신형 모델이 2억밖에 안한
데...작년에 산 BMW 바꿀때도 된 것 같구..“

“그래? 사도록 해!! 이왕이면 풀 옵션으로 하고”

“자기~ 고마워. 참! 한가지 더 말할게 있는데...”

“뭔데?”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풀장과 테니스 코트가 딸린 바닷가 전망 좋은
저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좋은 가격이라”

“얼마?”

“20억이면 될것 같대”

“그래? 바로 연락해! 사겠다고”

“알았어요. 자기~ 사랑해. 이따 봐요. 쪽쪽~~~!”

전화를 끊은 남자, 갑자기 전화기 든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

“이 휴대폰 누구 겁니까?”



추석선물 BEST 또는 WORST

코로나 19로 인하여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 전체가 힘들어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며 우리 조상들이 풍요를 노래하던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도 변함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추석에 부모님들께서 무슨 선물이 받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선물이 싫은지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선물이라면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서 받는 분도 기분 좋고 드리는 사람도 기분 좋은 선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알아보았으니 올 추석에도 서로서로 기분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EST

- 1위 : 용돈 박스 및 상품권! (역시 한우보다는 현금이죠~)
- 2위 : 한우 세트
- 3위 : 건강 관련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족욕기, 돌침대 등)

WORST

- 1위 : 양말 손수건 스타킹 같은 잡화 선물세트
- 2위 : 비누 치약 샴푸 등 생활 필수품세트
- 3위 : 꿀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 4위 : 햄이나 참치 통조림 세트
- 5위 : 된장 고추장 등 전통 특산품



어떤 선물이든 마음 담긴 선물이 최고인건 다 아시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시사용어 Briefing

락다운(lockdown) 세대

락다운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가, 지역끼리 고립되고 일상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의미.

사전적 의미인 '봉쇄'를 붙여 봉쇄된 세대를 의미하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취업이 늦어지는 청년층을 락다운 세대로 표현한다.

퍼플잡

퍼플잡은 보라색(purple)과 일(job)의 합성어로,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방식이다. 단기근로, 요일제근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뒀야 했던 구직자들이 재 취업에 나설수 있도록 마련된 일자리다. 보라색은 가정을 뜻하는 빨간색+일을 뜻하는 파란색을 혼합해 평등, 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한다.

클린테크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지하거나 발생빈도를 축소하는 환경기술이다. 폐기물에서 원료 혹은 에너지를 추출하여 재사용 하기도 하거나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태양력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도 클린테크라고 볼수 있다.

스테이케이션

stay(머물다)+vacation(휴식)의 합성어다.

집이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금 새로운 트렌드로 급 부상했다.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형태등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해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또는 편집기술이다. 미국의 ‘딥페이크’라는 ID를 가진 누리꾼이 올린 합성영상이 논란이 되어 고유명사화 되었다.

- *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가짜 영상이 만들어 질수 있어서 뜨거운 감자이다.
- * 참고로 얼굴 편집앱은 중국에서 가장 잘 만들다 등등..

모디슈머

제품을 자신의 취향대로 다시 수정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modify(수정하다)+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다. 기존 라면 끓이기 말고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해서 만든다던가 색다른 커피 제조법 등이 모디슈머가 만들어낸 유행들이다.

짜빠구리, 달고나라떼 등등

미닝아웃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행위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다. (ex.해시태크)

미닝아웃의 소비는 제품 자체를 구매하는 것 보단 자신의 신념을 산다는 의미가 더 크다.

소셜네트워크(눈)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메시지가 담긴 제품 패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 취향 성향 주장등 다양한 것들로 세상에 표출한다. (주로MZ세대 집중) 돈쫄넌다 등도 미닝아웃에 해당된다.

게하시 [Gehazi]

뜻 : 환상의 계곡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순종과 거역의 극단적 양면성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벴 여인의 친절에 보답하려 할 때, 수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고하여 수벴 여인이 1년 후 아들을 얻게 하였으며,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의 지시로 수벴 여인에게 가서 죽은 아들의 얼굴에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놓는 사역도 하였다(왕하 4:8-37).

하지만 게하시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 엘리사에게 사례하려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 대신 욕심이 생겨 뒤에서 몰래 선물과 예물을 챙기다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다(왕하 5:1-27). 징계는 게하시 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후에 그는 수벴 여인이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 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하여 여호람 왕에게 나아가 수벴 여인의 땅을 되찾아주었다(왕하 8:1-6).

"욕심"으로 인한 형벌은 참으로 가혹하다.

삶에 있어 이러한 눈에 가리운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은혜로운 찬양>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잊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여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 이달의 교회소식

1. 등산대회 / 9월 9일 1. 대청호둘레길, 2. 말티재전망대
3. 신정호
2. 권찰회헌신예배 / 9월 19일 오후6시

● 공지사항

1. 9월 생활실천표어 / 네 삶을 형통케 하라
2. 코로나19 개인생활방역 / 마스크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3. 추석명절 /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로 보내기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보내기

● 이달의 교우소식

1. 차량구입 / 한승권목사 51너9419 박두식권찰 51너9810
김성광권찰 51너9021 이민애청년 46우3433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